

학생회관 내달 12일 개관

입주식, 대동제 기간중 거행 예정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이 오는 10월 12일 개관식을 갖고 입주식을 시작한다.

이번 개관식일자의 확정에는 지난 14일 교수협의회실에서 열린 학생과 학교측의 회의에서 합의, 결정되었다.

이날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와 학생측에서는 기존 26일 입주식을

강행하자고 주장했으나, 김민복 건설부장등 학교측 대표들은 지난 12, 13일 내린 비로 인해 옥상방수공사를 다시해야하며 시멘트등 자재 확보가 어려워 26일 입주하는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학생측은 학생회관 완공이 8월말에서 9월말로 연기

된 상태에서, 10월중순으로의 또 다시 연기는 우천으로 인한 것보다는 부실공사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학교측에 대자보등을 통해 완공연기에 대한 정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 학교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12일 개관과 더불어 입주하기로 합의했으며 입주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논의에서 학생회관 완공을 10월 11일로 결정한 것은 9월 28일부터의 학생들의 귀향과 10월 초 연휴로 인해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날은 10월 10일 전후로 판단한 것에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89년도 2학기 자연과학관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좀더 확실한 공사를 진행한후 입주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개관식 이후 바로 중간고사일정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실시후 대동제 기간중 입주식을 치루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한편 학생회관에 입주하는 시설 및 각 자치기구는 다음과 같다. △1층:식당, 휴게실, 우체국, 은행, 복사실, 상설전시실, 구내

스칼라피노, 국제정치관련서적 5천여권 기증

데이비드슨 이사장과 명박수여

본교 대학원(원장 라종일 교수)은 로버트 A. 스칼라피노(미국 캘리포니아대)교수에 대해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로렌스 J. 데이비드슨(미국 코네티컷 주립대학 이사장)씨에 대해 명예경제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수여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본관대학회의실에서 있게 되며, 학위 수여증기와 경력은 다음과 같다.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는 전 버클리대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역임, 미국 학술원 회원 역임, 북동아시아의 주요전략관계 등 학문 발표 및 한-미간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데이비드슨(Lawrence J. Davidson)은 코네티컷 소매상인협회 회원 역임, 뉴브리튼 경찰사무 감독위원회 이사회원, 본교

교수 및 유학생 상호교류 지원 및 한-미간 우호증진에 공헌했다. 한편 스칼라피노씨는 국제정치관련서적 5천여권을 명화복지재단에 기증한다.

이에 '명화복지재단'은 따로 공간을 만들어 '스칼라피노 Book Collection'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오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이후 도서관식과 총장갑사 패 전달이 있다.

외대·공대 간부회의

외국어대학 학생회는 오늘 5시 30분 123소극장에서 학대간부회의를 가진다.

과대표, 과학생회장등도 참가하는 이번 간부회의에서 9월 20일 총권기투쟁제안, 하반기 일정 공유등의 안건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인복위는 "계속적인 홍보·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자가 응모수가 줄어들었다. 고 밝히고 오늘부터 임시주차장배포, 경고스티커 부착, 주차불가 지역 설정 등 체계적인 통제를 할 예정이다."

또 인복위는 지난 13일부터 응모가 있는 차량에 대한 임시주차장 배포, 경고스티커 부착, 주차불가 지역 설정 등 체계적인 통제를 할 예정이다.

본교, 수재 의견금 전달

교직원 등 2천여만원, 조선일보사에

본교는 지난 14일 전 교직원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2천 1백 40만 6천원을 조선일보사에 전달했다.

이번 수재의연금은 직원들 임금의 1%씩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교직원일동 1천만 1만원, 재단사무국 14만 6천원, 경희의료원

정이다.

또한 공과대학 학생회는 오늘 5시 30분 공대 학생회실에서 단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각 과학생장으로 구성되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8일로 예정된 공대체육대회일정과 각과 교섭위 건설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교내 차량 통제 강화

아르바이트생 증원·경고 스티커 부착

학생자가용 증과 및 외부차량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해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차량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증원, 경고스티커 부착 등 방법을 마련했다.

인복위는 "계속적인 홍보·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자가용 등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고 밝히고 오늘부터 임시주차장배포, 경고스티커 부착, 주차불가 지역 설정 등 체계적인 통제를 할 예정이다."

또 인복위는 지난 13일부터 응모가 있는 차량에 대한 임시주차장 배포, 경고스티커 부착, 주차불가 지역 설정 등 체계적인 통제를 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처 근로 아르바이트 10명, 인복위 복지아르바이트 17명 등 총 27명이 정·후문에 12명, 나머지는 두 갈래로 나누어 경고스티커 부착, 주차지도 등을 실시한다.

최희갑(사학·4) 인복위원장은 "학생이 자가용을 타고다니는 것을 학생이 단속하는 이윤배반적

인 현상이 지금 우리학교의 현실"이라며, "학내 주차난, 학생간 위화감 조성 등 문제가 있으니 학생 스스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정겨운 사제시간



마지막까지도 정겨운 사제시간의 사람이 확인되는 교별감

후학을 대하는 노스승의 아쉬운 모습에서는 간절함마저 느껴진다. <전환환 기자>

총학생회 진군식 18일로 연기

모금활동등 수해복구사업 전개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2학기 진군식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오는 18일로 연기하여 개최한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0일까지 단과대학별로 수해대책물자와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도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근처와 신갈등지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전개했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서총련)은 지난 14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천미파쇼 연합 민자집 장기집권 음모 분석을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 2차

기 투쟁선포식'도 이날 개최한다. 또한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도 지난 13일로 예정되었던 진군식을 오는 26일로 연기하여

한편 민자당 일당 국회해산과 민중생존권 쟁취대회'가 국민연합최초로 22일 열릴 예정이다.

교심위 '자연과학개론'교재 회수
오늘까지 해당 단대 학생회서

수원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교심위)는 오늘까지 자연과학개론교재를 반납받는다.

의대, 사회대, 산업대, 체과대 1·2학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조치는 89, 90년도에 책

은 받았으나 강의를 받지않은 경우에 실시된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은 교심위에서 각 과대표를 통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 전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때마침 가을철 집중호우로 재난을 당했습니다. 불과 사흘만에 5백미리라는 사상유례없는 집중호우는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와 재산을 앗아갔을뿐 아니라 커다란 실의와 절망을 던져주었습니다.

대학인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 수재민들에게 용기를 전해줍니다.

△모금기간:9월 24일까지
△집수처:본사편지실 및 수원캠퍼스 편지실
△연락처:(교내)0095(서울), 2056(수원),

△조영식총장 금일봉 △김초희 회원일동 10만원 △이석우(문리대·사학)교수 3만원 △유공조(문리대·사학)교수 3만원 △정관수(공대·전자공학)교수 3만원 △이용호(신문방송과 과장) 2만원 △조문수(학적과) 1만원 △대학주보사 기자일동 10만원

대학주보사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느끼는 사랑”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형식들을 귀찮게 여길때가 많습니다. 모든것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그 내용못지 않게 형식이 중요할때도 있습니다.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것이 곧 우리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정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감동과 감정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서로가 마음뿐이고 결어로는 모란처럼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과 정성을 겉으로 잘 표현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예절 바른 대학사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